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필리핀 태풍 이재민을 위한 구호헌금을 드립니다. 구호헌금을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각 선교회와 기관은 당회 준비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nanumcc@naver.com)

2013년 당회가 12월 8일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성령강림절기는 이번 주에 끝나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내복을 입으십시오. 건강과 자연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렘 23:1~6 / 눅 1:68~79 골 1:11~20 / 눅 23:33~43

시 130:1-8

식 당 봉 사 : 장혜숙 박성실 심상숙 정현선 오자영 최영혜 허호범
 다음 주 식당봉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박경원 허정호 박미연 조순덕 김정우
 오늘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류준모 심호선
 다음 주 설거지 : 3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성실한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 있던 것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시간의 신비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인도자이십니다. 생명의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체제와 권력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억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신뢰를 잃어버림은 스스로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나의 이익에만 몰두함은 내일 우리의 미래를 버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권미숙 권채영 김신실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정길 최숙화 김현주 김홍기 박경원 박영희 방민 방준 변재민
 이소혜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순용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지훈 이현순 정완수 김재광 정현모 한훈식
 허신열 허준호 홍성식 이유리

감사헌금

김종락 박영신 김진중 김희우 박성실 서정제 임성은 유경석 유혜경
 이경희 이광용 형인순 임미심 전인섭 정영례 정현숙 무명5

생일감사헌금

오복순 조병무 송양숙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이범석 류정옥 정수현 무명1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조순덕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박성희
김재흥	최경미	이은옥	차혜심
장영숙	신영신	김진경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김정숙	정경례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권미숙	박미영	박미영	권미숙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윤수진	김필순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김현주	이정선
정영선	서정순	김희성	정영선
박혜경	조항미	백성래	정영창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의자

- 이정록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에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나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것이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전도사 : 이재훈 김철수 구성실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사십시오. 그릇된 세상의 원리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뒤를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읍기 /김기석 목사 기도 : 박시내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최다미 선생 김승현 집사

11	영접위원	한상익 홍순구 조문규 심상숙 안홍숙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혜경

불편함은 정신을 깨어 있게 합니다

군자는 무일無逸(편안하지 않음)에 처해야 한다. 먼저 노동(稼穡)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취해야 비로소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건대 그 부모는 힘써 일하고 농사짓건만 그 자식들은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편안함을 취하고 함부로 지껄이며 방탕 무례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업신여겨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 「시경」 ‘무일’편

이 글은 주공이 조카 성왕成王을 경계하여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인 무왕武王이 죽은 후 어린 조카 성왕을 도와 주나라 창건 초기의 어려움을 도맡아 다스리던 주공의 이야기입니다. 군주의 도리로서 무일無逸하라는 것이지요. 안일에 빠지지 말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무일’편에서 개진되고 있는 무일無逸사상은 주나라 역사 경험의 총괄이라고 평가됩니다. 생산 노동과 일하는 사람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 어려움을 깨닫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무일 사상은 주나라 시대라는 고대사회의 정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문화와 중국 사상의 저변에 두터운 지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1957년과 1980년대에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던 하방下放운동의 사상적 근거가 바로 이 무일 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방 운동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 간부, 정부 관료들을 농촌이나 공장에 내려보내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군 간부들을 병사들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운동이었지요. 간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지식인 개조 운동으로 문화혁명 기간 동안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하방 운동에 동원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일’편은 주공의 사상이나 주나라 시대의 정서를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편을 통해 가색稼穡의 어려움, 즉 농사일이라는 노동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생산 노동과 유리된 신세대 문화의 비생산적 정서와 소비주의를 재조명하는 예시문으로 읽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나한테 건설 회사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는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일’이란 이름을 추천했지요. 건설 현장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싫다고 하더군요. 건설 회사가 ‘일이 없으면’(무일)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무일無逸이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감이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일이란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공감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신세대 정서로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무일은 불편함이고 불편은 고통이고 불행일 뿐이지요. 무엇보다도 불편함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깨어 있게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지요.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한 것이요, 살아간다는 것이 곧 상처받는 것이라는 성찰이 없는 것이지요.

— 신영복, [강의] 중에서